

★이 글은 6모 직전 실전 적용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만의 풀이 방법이 있는 학생은 그대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서를 1회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고 순서를 연구해 왔고, 6모 이후 전체 문제를 예시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다음 순서로 쓸게요.

- 1)문장 차원, 문단 차원, 글 전체 차원을 고려한 출제자의 의도(=문제 유형)와 이를 간파한 우리의 전략
- 2)독서를 문제 순서대로 풀지 않는 이유(->지문의 흐름에 따라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 3)예시 문항

독서에는 6개의 문제 유형이 있다.

1. 전개방식 문제
2. 일치 문제
3. 이유추리 문제
4. 표그림그래프 문제
5. 줄글 보기 문제
6. 어휘 문제

이것은 출제자 의도와 일치한다. 출제자는 문장 차원, 문단 차원, 글 전체 차원에서의 읽기 능력을 물어본다. 이에 따라 문제마다 지문에서의 답의 위치가 결정된다. 문제 유형에 따른 답의 위치는 각 '문제 유형별로 공부'할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른 '문제 풀이 순서'에 집중해 보겠다.

이 순서는 시험지에 제시된 문제 순서에 따라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흐름'을 따라 풀이하는 방법이다. 지문을 읽어가면서 해당하는 문항을 풀어버리면 인지 부담을 줄이고, 읽은 데까지의 내용 이해를 도와 다음 문단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문제 유형에 따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문 구성 원리에 따라 답의 위치를 찾는 '독해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따라서 이것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풀이순서'를 중요 시험에 적용하면 안 된다!!!)

다음은 그것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독서 1회독 풀이순서'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문제 유형별 풀이순서를 제시한 후, 그것을 예시문항에 적용해 보겠다.

**일단 문제들의 발문까지만 먼저 읽는다.** 이때 문제유형별로 다음을 행한다. 그 후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지문에 표시해 둔 대로 풀면 모든 지문을 1회독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1. **전개방식 문제** - 지문을 다 읽은 후에야 풀 수 있다.
2. **일치문제** - '지문 읽기 시작 직전에' 일치 문제 선택지 항의 맨 앞부분(보통 주어부)을 확인한다.(무엇이 출제되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맨 앞에 제시된 '대상' '주체' '조건' 자체로는 지문 내용에 대해 헛갈릴 일이 없다. 이 맨 앞부분 다음에 오는 서술부를 끝까지 모두 읽는 것은 금물이다.)
3. **이유추리 문제** - 지문에 표시된 ㉠의 위치를 찾고, 해당 문단 끝에 문제번호를 써둔다.(지문을 읽다가 이 번호를 만나면 바로 풀 예정)
4. **표그림그래프 문제** - 그림이라면 그림에 붙어 있는 문자나 숫자를 읽고, 지문 읽다가 해당 문단 개념이 나오면 이 그림을 참고해 가며 이해해야 한다. '과정'이 나오면 읽으면서 메모해야 한다. 이렇게 메모해 두지 않으면 결국 다시 읽어야 한다.

그래프라면, x축과 y축의 '기준'이나 '변인'을 봐 두어야 한다. 지문을 읽다가 이 두 개의 관계를 말하는 문단이 있다면 이 그래프를 참고해 가면서 읽는다. 해당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다면 해당 문제를 푼다.

표는 그래프의 x축,y축처럼 가로축이나 세로축 기준들만 눈여겨 봐두었다가 지문을 읽어내려갈 때 그런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문과 함께 읽는다.

**2,3,4번 문제 유형**은 문단별로 읽어 내려가면서 풀면 되는 '일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 '추리문제'조차도 우리에게 '추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조건 답은 지문이나 보기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찾을 뿐'

**5. 줄글 <보기> 문제**는 '적용하기' 문항이다. 지문의 어느 문단과 관련있는지 문제를 살펴보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다. 문제를 살펴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도, 필요도 없으니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면 된다.(혹 글밥이 많은 고난도 문제라면 이 한 문제 과감하게 스킵!한다.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이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풀 수 있다. 일단 끝까지 다 풀고 와서 이 문제에 다시 도전하는 게 영리한 대처이다.)

6. 어휘 문제 - 사전적 의미 문제는 2음절의 체언, 문맥적 의미 문제는 용언에 대해서 묻는다. 대부분 지문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다음 지문 세트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푼다. '내용'문제를 다 처리한 후에 푼다는 얘기. 다만,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만 묻거나, '바뀌쓰기'문제라면 읽다가 바로바로 풀면 좋다.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24년 3월 시행 기출 문제이다.  
먼저, 14번~17번까지의 '발문'을 읽는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의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16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포괄적 승계라서 자신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제2 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제1 순위자와도 제2 순위자와도 같은 순위이다.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 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 : 1 : 1이다.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 문제'이므로 지문 읽기 직전에 아래 선택지의 앞부분 주어부만 읽는다.
- ①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②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 ③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④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목적물을 소유한다.
  - ⑤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이므로 지문 읽기 직전에 아래 선택지의 앞부분 주어부만 읽는다.
- ①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 ②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 법인에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④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 행위로 분류된다.
  - 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끝에 문제 번호 16을 써준다.
-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재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줄글 <보기> 문제는 '적용하기' 문제이므로 아래 <보기>를 지금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선택지의 앞부분을 확인해 본다. ①②번을 번호 좌측에 묶어서 읽어야겠다. 지문을 읽을 때 '채무가 있을 때'와 '채무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 보 기 >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이다. X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으로 14억 원의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 ①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 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 ②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 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
- ④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만, X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 ⑤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이제 나는 14번과 15번의 앞부분에서 출제된 개념어를 확인한 후 지문을 읽을 것이다.  
 1,2문단을 읽은 후 14번과 15번에서 풀 수 있는 개념어 뒷부분의 선택지 진술을 다 읽은 후에 선택지 끝에 진술의 정오OX를 표시할 것이다.  
 3문단을 읽을 때는 ㉠을 풀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을 읽은 직후, 16번을 풀 것이다.  
 4,5,6문단은 17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모두 읽은 후에 17번 문제를 풀러 갈 것이다.  
 만약 이 지문에 첫 문제로 '전개방식'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이제 풀 것이다.  
 어휘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맨 끝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훌가분한 마음으로 풀면 된다.

'법' 지문은 영역 특성상 **주체, 대상, 객체(상대), 방향, 조건,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 이 요소들이 주된 출제 요소가 된다. 우리가 독해할 때도 이것을 중심으로 독해해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상속인(받는 사람), 피상속인(주는 사람) 등 법률 용어는 그 논리적 관계를 축약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생소한 경우가 많다. 지문의 처음 부분에서 '정의'할 때 숙지해야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 개념 정의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개념 정의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 공통점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단 주제문(이하의 문장들은 이 주제문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예를 들면,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의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언과의 차이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언은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이 있고, 계약은 법이 정한 방식이 없다는 게 중심 내용 14,15번 ->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
- ① 유언의 철회는) 아직 안 나왔음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② 상속의 대상은) 아직 안 나왔음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 ③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금방 읽었네 0
  - ④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목적물을 소유한다.
  - ⑤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X

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문단 0
  - ②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문단 X 유증은 일방적으로 성립, 수증자는 거절할 수 있을 뿐.
  - ③ 법인에 유증을 할 때) 아직 안 나왔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④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상속' 아직 안 나왔음 법률 행위로 분류된다.
  - 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단 0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문단 주제문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왜냐,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기가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왜냐,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기가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러나 다음 두 개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옆집 아줌마나 법인에게도 유증이 가능한데,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인'은 '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 (=가족)이고, 옆집 아줌마나 법인에 유증하게 되면 이들은 단순히 '수증자'일

뿐이다. 문단에서 '수증자'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㉞(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 '법'이 '정한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법이 정한 '비율'인 '상속분'을 바꾸는 유언은 안 됨. 그러니까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또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16->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이거 ㉠의 바로 앞 문장에서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의외로 이것을 답으로 한 친구가 많았다는 사실~ :)
-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순위를 모른다면 이 선택지를 후보로만 남겨둔 채 다음 문단을 읽는다.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상속'은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가 아님. '유증', '유언'은 '의사 표시'라서 법률 행위임.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조건 상속인이 된다.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제2 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제1 순위자와도 제2 순위자와도 같은 순위이다.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었더라도 이하의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 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 : 1 : 1이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정답 확정!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

— < 보 기 > —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이다. X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으로 14억 원의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 ①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포괄적 승계라서 0
- ②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0
- ③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 1.5:1.5니까
- ④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만, 아들과 딸이 순위이므로 오히려 부모가 받을 상속 재산은 없다. X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 ⑤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10하원칙을 바탕으로 '오답 기준'을 익히고 난 후, 답이 ①번이나 ②번에서 확실하게 나온다면, ③~⑤번 선택지를 확인하지 않게 좋다. (일단 끝까지 푼 다음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번호에 표시해 두기.) '오답 기준'을 확실하게 익힌다면 정답을 제외한 오답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아래도 마찬가지.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

- ①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3문단 X
- ②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4문단 X
- ④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목적물을 소유한다. 4문단 X

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법인에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0 유언은 자유니까
- ④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 행위로 분류된다. 0

이 방법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독해의 본질적 사고 체계입니다. 6월 모의 평가 직전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험 후 '문제 유형'별로 정해진 '답의 위치'를 확인하고, 문장과 문장을, 문단과 문단을, 전체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낼 계획입니다. 일단 1회독으로 풀이하는 '6모 전체 해설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온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다만, 6평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점을 확인한 후 이를 보강하기 위한 시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나는 인티제 원리)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0하원칙』 문제풀이법과 풀이순서, 교재구성  
특허출원번호 10-2023-0052996  
『10하원칙』 상표권 출원번호 40-2023-0219103